

보도 희망 일시	즉시
문의	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
	지성태 전화: 033-339-5707, 이메일: dongsimjst@snu.ac.kr

배포일: 2025. 2. 10.(월)

## 서울대 평창캠퍼스, 농촌 이주노동자 집담회 개최

□ 지난 2월 6일(목)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(원장 양태진 교수)은 평창캠퍼스 대회의실에서 ‘농촌 이주노동자 상생협력 집담회’를 개최하였다. 본 집담회는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지역 청년농부의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‘농사상생 프로젝트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현재 우리 지역이 당면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,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였다.

□ 서울대 지성태 교수는 집담회에 앞서 2024년 농사상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한 청년농부 교류, 문화행사, 봉사활동은 물론 베트남, 과테말라,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였다. 첫 번째 발표자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황경진 박사는 ‘대만 농업부문 이주노동자 활용 사례’란 주제로 대만의 농업부문 이주노동자 제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하였고, 정부인가 인력중개회사 중심의 제도 운영 및 농업부문 중급기술인력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□ 두 번째 발표자인 홍천군 석미경 팀장은 ‘홍천군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’을 주제로 홍천군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할

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였고, 제도 전담팀 운영과 통역사 활용을 통한 근로자와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려는 지자체 노력, 송출국과 수용국 지자체 간 자매결연과 다양한 우호교류 프로그램으로 상호 신뢰 구축 등이 포함된다.

□ 토론에 참여한 지역 청년농부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 예를 들어, 동일 근로자 재고용을 통해 농장 적용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, 숙련근로자와 초보근로자의 동일 농가 투입으로 기술 전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다.

□ 본 행사를 준비한 지성태 교수는 “ ‘농사상생 프로젝트’ 플랫폼으로 이주노동자 이슈와 같이 청년농부를 비롯해 지역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집담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겠다” 고 밝혔다.